

## 학교 지필고사 문항 오류 이의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2 학부모입니다. 지난주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아이가 틀린 영어 시험 문항에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주요 과목이기도 하고 아이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과목이라 학교 측에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_박서연(43·경기 과천시 별양동)

### 이의 신청은 시험 직후 가급적 빨리 해야 합니다.

지필고사 오류 이의 신청은 채점 전에 문제가 제기돼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경기 동학중 박현민 교사는 “채점 완료 후에라도 오류가 확인된다면 수정해야 하겠지만, 성적 처리가 모두 끝난 뒤 성적 확인 기간에 이 같은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학년 전 학생의 성적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때 중3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등에 쓰일 내신 성적을 기간 내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필고사 문항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다면 시험 검토 기간을 넘기지 않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시험 검토 기간은 지필고사를 마치고 채점 결과가 공지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이 오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 뒤 오류로 명시되면 문제가 된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거나 재시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MORE TIP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이를 접수해 문항 오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해당 교과 문항의 출제 교사뿐만 아니라 출제와 검토의 경험이 많은 동(同) 교과 교사도 함께 검토 과정을 거쳐 이후 절차를 논의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 수리 논술 범위에 포함된 <기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교 교육과정에는 있었지만 <기하>를 선택하진 않았는데요. 수능 수학이 선택 과목이라 논술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수리 논술에 수능 선택 과목을 모두 포함해 출제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논술 학원까지 다닐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_ 정명희(기명·47·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차곡선·평면벡터 등 <기하>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는 올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지만 상위권 대학의 수리 논술 범위에는 세 과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지만 진로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휘문고 우창영 교사는 “수능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기하>는 선택 과목에 해당한다. <기하>가 논술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내신으로라도 선택해 배운 후 대학에 진학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간벡터, 공간도형의 방정식 등 학생들이 어려워한 주요 내용이 빠져 <기하> 단독 문제보다 주요 개념을 소재로 한 융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차곡선(포물선, 쌍곡선, 타원 등의 개념)과 기본 정리를 숙지하고, 평면벡터도 기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논술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혹은 ‘선행 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목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구분해 참고합니다. 우 교사는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빨리 풀어야 하는 시간 평가 요소가 강하다면 논술은 주어진 시간에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역량 평가 요소가 강하다. 논술 문제를 보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인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한 후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 MORE TIP

올해는 특히 대학별 모의 논술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 논술 문제는 시행 후 대학 홈페이지에 논술 가이드북 등의 형태로 탑재됩니다. 모의 논술 문제는 교과서 속 어떤 내용을 근거로 출제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교과서 페이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모의 논술 문제들을 살피고 해당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찾아보며 공부하는 방식으로 배우지 않은 과목인 <기하>의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